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875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7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민병덕 · 이성운  
이병진 · 김준형 · 임호선  
위성락 · 김남근 · 송옥주  
강유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(권리행사방해죄)에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‘친족상도례(親族相盜例)’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(헌법재판소 2024. 6. 27. 선고, 2020헌마468 결정)을 내렸음.

이에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(안 제328조).



법률 제 호

##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8조제1항 중 “配偶者間の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”를 “配偶者間に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告訴가 있어야”를 “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”로, “있다”를 “없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第328條(親族間の 犯行과 告訴)</p> <p>①直系血族, 配偶者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<u>配偶者間の</u>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한다.</p> <p>②第1項以外の 親族間に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<u>告訴가</u>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| <p>第328條(親族間の 犯行과 告訴)</p> <p>①-----<br/>-----<u>配偶者間に</u><br/>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<u>告訴가</u>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</p> <p>②-----<br/>-----<u>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</u>-----<u>없다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